# 한글문헌의 문화중층론적 연구방법 서설

백두현(주저자)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어학 전공
dhpaek@knu.ac.kr

배준영(공동저자)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국어학 전공
yn480125@naver.com

Ⅰ. 머리말
Ⅱ. 문화중층론의 개념과 층위
Ⅲ. 문화중층론 분석방법과 적용의 문제
Ⅳ. 맺음말

이 논문은 2013년 12월 국어학회가 주관한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깁고 다듬은 것이다.

# Ⅰ. 머리말

하나의 문헌에는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담겨 있다. 그 문헌이 저술·출판되던 당시의 언어문화는 물론이거니와 당대의 사회적 상황, 역사적 환경, 출판·기술적 상황, 편찬의 배경과 목적 등이 녹아들어 있다. 각각의 문헌에는 그 문헌의 성격을 규정짓는 언어, 사회, 정치, 역사, 기술 수준 등 다양한 측면의 문화적 요소가 융합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옛 문헌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작업은 그 문헌 속에 융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요소를 찾아내고 해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작업을 통해 우리는 한 문헌에 내재된 역사적 가치를 파악하고, 그것이 현재의 삶에 어떤 의미 양태로 작용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한 문헌에 융합된 다양한 문화 요소를 분석하고, 이들을 통합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법론을 세우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우리는 한 문헌 속에 중첩된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를 분석해내어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밝히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가 모색한 연구방법론을 기반으로 하여 한글문헌[1] 자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려고 한다.

이제까지의 한글문헌 자료에 대한 연구는 크게 보아, 서지학적 측면의 분석과 국어학적 측면의 분석을 통해 행해져왔다. 문헌자료에 대한 서지학적 분석은 그 문헌의 물질적 측면과 외형적인 특징을 기술하였고, 국어학적 분석은 내용적 측면에서 그 문헌에 담긴 언어적 특징 및 국어사적 성격을 밝히는 연구의 틀로 기능해왔다. 책의 장정법, 판식과 판본, 서체, 지질, 저자와 간행지, 간행연도 등을 살피는 서지학적 분석은 그 문헌의 물질적 특징과 역사적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문자의 사용 양태와 한글 문장의 표기 양상, 음운현상, 형태, 의미, 어휘 등에 관한 국어학적 분석은 그 문헌의 언어적 특징과 국어사적 가치를

1) 한글문헌은 한글로 표기된 옛 문헌을 말한다. '한글 고문헌', '한글 옛문헌'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한글문헌'으로 통칭한다. 한글문헌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한글이 창제된 1443년부터 서지학계에서 통용되는 고서(古書)의 하한선인 1910년까지로 본다. 그러나 1910년 이후에도 전통적 고서로 장정한 책(韓裝本)이 나오는 점을 고려하여 하한선을 1945년까지 늦잡을 수 있다. 한글문헌의 종류로는 판본으로 간행된 것은 물론 한글 편지와 한글 고문서, 한글 가사 등 손으로 쓴 필사본 자료를 총망라한다.

파악하는 방법론이 되어왔다. 두 측면의 분석방법을 통해 우리는 그 문헌의 물질적 특성과 역사적 가치, 언어적 특징과 국어사적 가치를 밝혀낼 수 있었다. 특히 국어학적 분석을 통해 우리는 그 문헌의 국어사적 특성은 물론 과거 전통사회에서 행해진 우리말의 다양한 쓰임과 역사적 변천과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한글문헌의 외형에 대한 서지학적 분석과 그 내용에 대한 국어학적 분석은 필수적이면서 기초적인 연구이지만, 한글문헌 자료가 가진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필자는 국어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시도한 논문에서 하나의 문헌이 나오게 된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을 두루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백두현, 2006a). 언어 분석에만 국한된 한글문헌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한글문헌 자료가 가진 다양한 가치를 드러내는 방법을 찾기 위해 문헌어가 담고 있는 문자 차원, 사고(思考) 차원, 사회 차원, 문학 · 예술 차원, 문화 차원의 가치로 나아가는 연구 방향을 제안한 것이다(백두현, 2006a: 20).[2] 필자는 이 제안을 발전시켜 한글문헌 자료가 가진 다양한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문화중층론(文化重層論)'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세우고자 한다.

문화중층론적 연구방법은 한글문헌 자료에 중층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를 드러내고, 이들의 상호 관계와 그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다. 각각의 한글문헌에는 당대의 언어문화와 사회문화, 그리고 그 문헌의 주제와 관련된 특정문화가 중층적으로 축적 · 융합되어 있으며, 한글문헌은 바로 이러한 문화적 요소의 축적과 융합의 결과물이다.

한글문헌에 대해 이러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은 국어사 연구방법론을 확충하는 것이며, 옛 한글문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글문헌 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점들이 문화중층론적 방법론에 의해 드러날 수 있다. 한 문헌이 담고 있는 언어현상은 물론 그 문헌을 둘러싼 당대의 사회문화, 그 문헌이 산출된 역사적 배경, 그 문헌에 담긴 주요 내용과 그것의 문화적 의미 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문화중층론적 연구방법이다. 우리는 문헌이

---

2) 이러한 관점에서 2013년 7월 국어사학회 · 국립국어원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대한 연구논문들은 주목할 만하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현대적 활용 방안과 역사적 배경, 언어적 분석 등을 다각적으로 다룬 이 학술대회는 한글문헌에 통합적으로 접근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산출된 당시의 언어생활과 사회적 환경, 시대적 배경과 그 특성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문화중층론적 연구방법을 한글문헌에 적용함으로써 그 문헌의 언어적 성격은 물론 문화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조명해낼 수 있다.

다음 II장에서는 문화중층론의 개념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하고, 중층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층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III장에서는 문화중층론의 분석방법과 적용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IV장의 맺음말에서는 이 방법론의 이론적 핵심을 요약하면서 앞으로의 연구 전망에 대해 논할 것이다.[3]

## II. 문화중층론의 개념과 층위

### 1. 문화중층론의 개념

'문화(文化)'는 흔히 '인간에 의해 이룩된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물질적·정신적 결과물의 총칭'이라고 정의된다.[4] 영국의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타일러(Edward B. Tylor, 1832-1917)는 문화를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기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획득된 모든 능력과 습관들의 총체"라고 정의 내리기도 했다.[5]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유형·무형의 생산물을 총체적으로 '문화'라고 이해할 수 있다.

'문화중층론'을 논하기에 앞서, 중층론(重層論)이란 술어에 내포된 '중층성(重層性)'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중층성이라는 용어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어왔다. 철학 분야의 노양진(2007)은 문화를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인간 문화에는 자연적 층위와 기호적 층위가 중층되어 있음을 논하였다. 사회학 분야의 배상훈(2009)은 조선

3) 필자는 별도의 논문을 통해, 문화중층론적 연구방법을 20세기 초에 출간된 한글 음식 조리서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 적용하여 각 층위별로 중첩된 요소들을 분석하고 그것의 의미를 통합적 관점에서 해석할 예정이다.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주)두산동아, 1999), 2295쪽 참조.

5) Edward B. Tylor, *Primitive Culture*(London: John Murray, 1871), p. 1(유태용, 『문화란 무엇인가』, 학연문화사, 1999, 10쪽에서 재인용).

후기의 상속(相續) 관행에 사회·경제적인 특수 상황이 중층적으로 녹아 있다고 보았다. 문화학 분야의 김순배(2011)는 한국어의 지명어(地名語)에 한국인이 수행해온 언어생활의 중층성이 투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언어생활의 역사적 변천과 그 결과가 중첩되어 있는 지명어의 속성을 가리키기 위해 '중층성'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문화역사지리학 분야의 조아라(2012)는 관광지(觀光地)라는 공간 속에 내재한 역사·문화적 요소를 중층성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종교학 분야의 안신(2013)은 한국의 신종교인 수운교에 여러 종교가 혼합된 중층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국어학 분야에서 '중층성'이라는 용어는 김주필(2008)에서 사용된 바 있다. 이 논문은 구개음화와 원순모음라는 음운현상에 국한해 논한 것이지만, 『오륜행실도』에 반영된 언어가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를 흡수하면서 이전 시대의 언어현상을 중층적으로 포함한 것이라 보았다. 김슬옹(2007a)은 훈민정음 제자 원리를 설명하면서 '중층 담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바탕층위, 과정층위, 제자층위, 내용층위, 배치층위, 최종층위로 나누어 각 층위의 특성을 논했으며, 김슬옹(2007b)은 창제 동기와 목적을 중층 담론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중층성'이라는 용어가 여러 학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특정 대상에 어떠한 요소가 중첩되고 융합되어 있는 현상'을 '중층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인간 문화'(노양진, 2007)와 '상속 관행'(배상훈, 2009), '한국의 지명어'(김순배, 2011)와 '관광지'(조아라, 2012)라는 대상은 어떠한 요소를 중층적으로 가지는 특정한 대상이 되고 있다. 어떠한 대상을 분석하는 데 '중층성'이라는 개념은 대상을 보는 관점과 시각, 나아가 연구의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층성'이라는 용어는 '어떠한 요소가 여러 층으로 중첩되고 융합되어 있는 성질'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중층(重層)'이라는 단어가 '여러 층'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동시에 '중첩되고 융합되어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중층성(文化重層性)'이란 '어떤 대상에 문화적인 요소가 중첩되고 융합되어 있는 성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아가 '문화중층론'이란 '어떠한 대상에 문화가 중층적으로 녹아 있는 성질을 밝혀내고 분석하는 이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중층성'과 '문화중층성', '문화중층론'에 대해 이와 같이 정의하고 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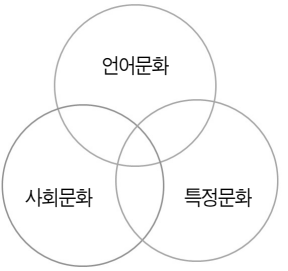


**그림1-한글문헌의 문화 구성 요소**

한글문헌을 분석하는 틀로 사용하고자 한다.

문화중층론의 개념을 더 깊이 논의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체계화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화'라는 추상적 개념을 확정적이면서도 고정된 구성 요소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필자의 영역 밖이므로, 한글문헌의 중층성을 분석하는 이 글의 목적에 필요한 수준에서 문화의 구성 요소를 설정하기로 한다.

필자는 한글문헌의 분석에 필요한 문화의 구성 요소를 크게 나누어 언어문화, 사회문화, 특정문화라는 세 가지 범주로 설정한다.

그림1은 한글문헌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문화 요소의 상호 관계를 도형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나의 한글문헌에는 언어문화와 사회문화, 특정문화가 상호 관계를 이루며 중층적으로 녹아 있다. 언어문화는 한글문헌 자료의 텍스트를 구성하는 언어와 연관된 문화적 특성을 가리킨다. 사회문화는 그 문헌에 반영되었거나 그 문헌과 관련된 당대의 사회적 특성을 가리킨다. 특정문화는 어떤 문헌에 특정적인 주제 혹은 중심 내용과 관련된 문화를 가리킨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하나의 문헌자료에 문화중층적 융합체로서 녹아 있다고 보는 것이 이 글의 기본적 관점이다. 한글문헌 자료의 중층적 문화 구성 요소를 세 가지로 구조화한 것은 한글문헌 자료를 문화중층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한 장치이다.[6] 다음 그림2는 이 세 가지 문화가 한글문헌에 중층적으로 융합되는 양상을 개념도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글문헌 자료에 녹아 있는 문화적 중층은 언어문화 층위, 사회문화 층위, 특정문화 층위로 나눌 수 있다. 그중에서 언어문화 층위가 가장 큰 이유는 한글문헌에 담겨 있는 문화가 기본적으로 언어로 표현되어 있고 그 문헌의 언어 텍스트 속에 각각의 문화 요소가 녹아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세 가지 층위로 문화를 범주화하여

6) 문화중층의 구성 요소를 몇 개로 하느냐, 그 명칭은 과연 적절한가와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다음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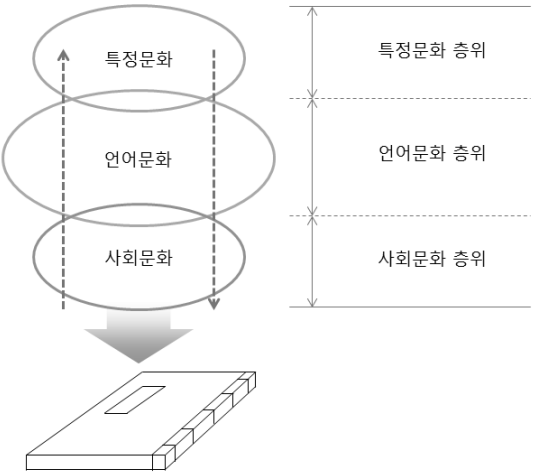


**그림2-한글문헌 자료의 문화중층성 개념도**

한글문헌 자료에 융합된 중층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각각의 층위는 다시 하위 구성 요소를 가진다. 하위 구성 요소들이 상호 결합하고 구조화되어 하나의 문화 층위를 형성한다. 분석의 방법론적 정립을 위해 3개의 층위로 나누었지만, 사실상 이 층위들은 각각 별개의 층위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덩어리로 융합(convergence)되어 실현된다. 그림2에서 상하로 오르내리는 점선은 층위 간의 상호 작용과 융합을 의미한다.

중층적으로 포개어진 문화적 요소들을 층위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분석된 요소들이 어떻게 융합하여 그 문헌의 의미 혹은 가치를 형성하는지, 그 본질을 밝히는 것이 한글문헌의 문화중층론적 연구이다.

## 2. 문화중층론의 층위와 구성 요소

한글문헌 자료의 문화 중층을 구성하고 있는 층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언어문화 층위, 사회문화 층위, 특정문화 층위가 그것이다. 하나의 문헌은 이 세 가지 층위가 녹아들어간 '문화 융합체(融合體)'가 된다. 예컨대 『병학지남』은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던 언어(한자 및 언문)로 간행된 한글문헌으로서, 당시의 언어문화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 문헌의 형태나 내용, 간행 정보 등으로 미루어볼 때, 간행 당시의 사회상을 짐작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담긴 '군사를 다루는 기술'과 관련된 내용은 군대와 군사, 전쟁 등과 관련된 특정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한글문헌 속에는 언어문화와 사회문화, 특정문화가 개별적 또는 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층적 문화 융합체를 분석하기 위해 그것을 구성하는 층위를 설정하는 방법은 이미 언어 분석의 틀로서 기능해온 방법론을 변용(變容)한 것이다. 인간의 언어는 말소리 덩어리라는 융합체로 실현된다. 언어라는 융합체를 분석하기 위해 전통적 언어학에서는 언어를 구성하는 하위 층위를 설정해왔다. 음운 층위, 형태 층위, 통사 층위, 의미 층위로 나누어 언어 융합체를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언어학은 말소리로 실현되는 덩어리를 음운 · 형태 · 통사 · 의미 층위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법론을 사용해온 것이다. 우리는 이 방법을 창의적으로 변용하여 한글문헌 자료에 융합된 중층적 문화 요소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한글문헌 자료에 융합된 문화 요소들을 한 겹씩 벗겨내어 그것을 음미하고 해석하는 방법론이다. 이런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한글문헌 자료에 대해 보다 깊고 넓은 이해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각각의 층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언어문화 층위

언어문화 층위의 설정 목적은 어떤 문헌에 담겨 있는 언어문화 요소들을 추출하여 분석하고 그 요소들이 갖는 의미를 찾는 것이다. '언어문화'라는 용어는 '일상의 언어생활 또는 언론, 문학, 출판 등 언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7] 성기철(2004: 121)은 언어와 문화의 관련성을 고찰하면서, 언어와 문화가 교차하는 중간에 '언어문화' 영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문형진(2012: 295-297)은 한국의 상장(喪葬) 풍속에 담긴 제 문화 요소를 의례문화 · 정신문화 · 언어문화 · 상징문화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 중에서 언어문화에 해당하는 요소로 상 · 장례 관련 어휘, 상 · 장례 관련 속담과 금기어를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학자마다 '언어문화'에 대한 개념이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언어문화라는 개념이 '언어를 사용하는

7) 국립국어원, 앞의 책, 4242쪽 참조.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이라고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이 글에서는 한글문헌 자료에 담긴 언어문화를 분석해내는 차원에서 그 분석 대상을 개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언어문화의 범위를 설정해보기로 한다. 한 문헌에 반영되어 있는 언어 요소에는 문자 표기와 음운, 형태와 통사, 어휘와 의미, 방언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언어 요소들은 지금까지 한글문헌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문화중층론의 관점에서는 좀 더 다양한 언어문화의 요소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8] 언어 태도[9], 언어예절과 경어법 요소, 문체 요소, 텍스트 구성의 양상과 원리 등을 언어문화 층위에서 다룰 수 있다. 필사본의 언어적 특성과 관련된 필사 요소의 분석도 언어문화 층위에서 주요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필자(백두현 2006b)는 음식조리서와 여성교육서의 필사 관련 내용을 분석하며 문헌의 저자와 필사자, 필사자 수, 서문, 발문, 필사기, 서명, 필체 등의 요소를 추출하여 '문자생활의 양상'이라는 요소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한 바 있다. 이러한 분석은 언어 자체의 분석은 아니지만 '문헌자료의 언어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백두현, 2006b: 18-19). 문장과 문단을 넘어선 텍스트로서의 특징도 당시의 언어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음식조리서에 등장하는 조리법의 서술 방식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되는 조리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조리법의 서술 방식을 문헌별로 비교하면 텍스트 구성에 나타난 변화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언간 작성에서 나타난 지면(紙面)의 '공간활용법'[10]은 언어 분석의 범위를 넘어선 차원에서 언중들의 언어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이 밖에도 언어문화 층위에서는 문헌 출판 당시의 언어와 문자 관련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필 수 있다. 책이 출판될 당시의 국가 언어정책이 그 문헌에 투영될 수 있으므로 이런 점을 주의 깊은 관찰로 찾아낼 수 있다. 예컨대 훈민정음 창제 직후의 한글문헌들에서

---

8) 김무식(2011)은 대구·경북지역어 연구 양상과 대구 문화의 상관성을 언급하면서, 방언학의 외연을 넓히자고 제안한 바 있다.

9) 언어 태도란 특정 언어 혹은 어법, 표현 등에 대해 화자(혹은 저자)가 갖는 태도를 가리킨다.

10) 종이가 매우 귀한 시절에 편지지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종이를 종횡으로 회전시켜가며 여백에 글자를 쓰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문자에 대한 태도를 찾아볼 수 있다. 『용비어천가』에서 이른바 '최고 존엄'인 왕의 조상들이 이룬 업적과 행적을 한글 가사로 표현한 것, 『석보상절』에서 위대한 스승으로 깨달음을 이룬 붓다의 생애를 한글로 번역한 것, 『월인천강지곡』에서 한글 활자를 크게 하고 한자 활자를 작게 한 점 등이 그러한 예이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한글이 국가의 제1 공용(公用) 문자가 되었다. 이 정책이 이후에 간행된 한글문헌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개화기 한글문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한글문헌의 이런 특성을 문화중층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에 대한 명료한 인식은 물론 그 문헌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언어문화 층위의 분석과 해석의 결과는 사회문화 층위와 특정문화 층위의 분석을 위한 기초가 되면서 나아가 층위 간의 상관성을 모색하는 토대가 된다.

### 2) 사회문화 층위

사회문화 층위의 분석 대상은 어떤 문헌에 수용되어 있는 사회적 요소와 그 의미이다. 여기에는 그 문헌이 생산된 사회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 역사적 환경이 포함된다.

『경민편언해』는 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설명한 책이다. 이 책은 민란이 일어난 지역이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간행된 것이 적지 않다. 초계판 『경민편언해』가 대표적이다. 이인좌의 난(1728년)이 일어나자 합천 초계의 정희량(鄭希亮)이 여기에 가담하였다가 관군에 의해 토벌당했다. 그 여파로 초계 지역의 민심이 흉흉해지자 이를 다스리기 위해 간행한 것이 초계판 『경민편언해』이다. 『경민편언해』 이본 전체를 이런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이 문헌이 지닌 사회문화적 특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떤 문헌도 정치적 환경과 사회적 배경에서 자유로운 것은 없다. 『구급방언해』, 『두창경험방언해』 등 많은 의서 언해본은 당대에 횡행한 질병과 전염병에 대처하려고 한 국가정책의 소산이다.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초기에 여러 한글 의서를 국가에서 출판한 것은 전후의 질병 치료와 민심 수습을 위한 국가정책을 배경으로 한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편찬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른

백성들을 위무하고 민심을 안정시켜 통치의 기강을 다시 세우려 했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송일기 · 이태호, 2001: 101). 광해군은 백성들의 충효열을 포상함으로써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 집권층의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를 노렸다(이광렬, 2007: 145). 이 책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정려(旌閭)와 같은 포상(褒賞)의 의미가 있었다. 한양 도성을 비우고 도망친 선조와 전쟁에 임하여 무능하게 무너진 조선의 지배층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던 시대적 배경에서 이 문헌이 간행되었던 것이다. 임진왜란 때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무하는 것은 민심수습의 첩경이었다. 충효열이라는 윤리적 기준과 삼강의 재정립을 통해 전쟁으로 크게 훼손된 왕권과 통치 이념의 복원을 시도한 정책이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편찬으로 나타난 것이다.

어떤 문헌에 융합된 사회문화적 요소를 찾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사회문화 층위에서 우리가 할 작업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이판본이 많은 문헌(『법화경언해』,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 『천자문』, 『병학지남』 등)을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헌이 출판되던 당시의 출판문화와 인쇄 기술, 종이 생산 능력 등과 같은 요소를 사회문화 층위에서 분석할 수 있다. 활자본으로 중앙에서 먼저 간행한 후, 이것을 지방에 내려보내 목판본으로 번각하여 출판한 일이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은 조치가 가진 정책 배경과 경제적 동기를 함께 고려하여 한글문헌을 연구하면 문헌자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11]

19세기 말기와 20세기 초기 인쇄 기술의 혁신은 한글문헌의 간행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했다. 출판 기술과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글문헌 간행이 양적으로 커다란 증가를 보였다. 서양의 기술과 문명에 눈뜸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한글자료가 쏟아져 나왔다. 예컨대 신활자본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초판 1924, 3판 1936)은 개화기 이후 서적 간행의 기계화, 대중화, 독서층의 확대, 필사본의 퇴화를 배경으로 출판된 것이다. 이 책에는 신분 차이에 따른 음식문화의 차이를 묘사한 내용도 나온다. 이런 점들을 사회문화 층위에서 다룰 수 있다. 조선시대 양반 중심의

11) 이런 연구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한국학의 인접 분야(한국사, 서지학 등)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고 활용하는 것이 첩경이다.

계급사회가 견고한 시절에 간행된 한글문헌의 특성과, 개화기 이후 양반 사회가 완전히 붕괴된 이후에 나온 한글문헌의 특성을 비교 연구하는 과제도 사회문화 층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화기 이후부터 20세기 전기에 생산된 한글문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저자 및 필사자 요소에 대한 연구도 사회문화 층위에서 다룰 수 있다. 저술 및 필사의 목적과 동기, 필사자가 남긴 필사기에 내포된 사회문화적 의미 등을 여기서 연구할 수 있다. 필사기는 필사 작업에 대한 필사자의 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각별한 가치를 가진다. 손으로 직접 글을 쓰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남이 써놓은 것을 보고 베끼는 작업과 새로운 창작물을 쓰는 일은 그 노고가 매우 큰 일이다. 필사자는 고된 작업 끝에 한 책의 필사를 완성하고 난 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느낀 바를 책 끝머리에 써넣었다. 이렇게 써넣은 것이 필사기(筆寫記)이다. 이 필사기는 책머리에 붙여 서문에 가까운 것도 있으나, 대부분 필사를 마치면서 책 끝에 써넣었다. 이 필사기에는 그 글을 저술하거나 베낀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필사기를 통해 우리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예컨대 필사본으로 전하는 『학봉김선생행장』의 앞표지 이면에는 "경인 십월 십구일 장칙ᄒᆞ야 제오녀의 손실을 주노라 父 (수결) 듕ᄒᆞ온 힝장이니 ᄋᆡ즁ᄒᆞ고 홈보로 내여 돌니지 말나"[12]라는 필사기가 있다. 이 필사기는 학봉 김성일 후손 김주국(金柱國, 1710-1771)이 쓴 것이다. 그는 딸 다섯을 두었는데 막내딸을 월성인(月城人) 손성근(孫星建, 1755-1837)에게 시집보내면서 이 책을 지어 딸에게 주었다. 시집가는 딸에게 집안 어른의 행실과 가르침을 언문으로 지어준 것에는 이 가르침을 기둥으로 삼아 고단한 시집살이를 잘 해내라는 아비의 뜻이 담겨 있다. 이런 필사기가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는 각별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문헌의 출판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관점의 연구는 역사학이나 서지학, 국어사 등 여러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왔다. 그렇지만 보다 체계적 관점에서 일정한 방법론을 세워 언어문화와 사회문화 층위를 아우르는 연구로 나아간 예는 찾기 어렵다. 문헌자료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요소를 찾아내고 이와 관련된 실증적 자료를 활용하여 그것이 갖는

12) 경인년 십월 십구일 장책(粧冊)하여 다섯째 딸 손실(孫室)에게 주노라. 아버지가 (서명). 중한 행장(行狀) 글이니 애중(愛重)하고 함부로 내어 돌리지 말아라.

의미를 찾는 작업이 사회문화 층위에서 다루는 핵심 과제이다.

### 3) 특정문화 층위

앞에서 언급했듯이 특정문화는 연구 대상 문헌의 중심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문헌 특정적인 것이다. 필자는 어떤 문헌의 주제 혹은 내용이 표방하는 문화적 성격을 가리키기 위해 '특정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특정문화 층위는 그 문헌의 중심 내용을 기반으로 한 층위이다. 특정문화의 범위 설정에서 크고 작은 규모의 범주화가 가능하다. 크게 잡은 특정문화의 몇 가지 범주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음식문화(음식조리서) · 불교문화(각종 불교서) · 유교문화(유교경서와 교화서) · 여성문화(여성교육서, 규방가사) · 의료문화(의학서) · 아동교육문화(아동교육서) · 군사문화(병서)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도 문헌의 특수성이나 주제에 따라 범주를 세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음식디미방』과 같은 음식조리서는 음식문화라는 특정문화 층위를 가진다. 특정문화 층위도 기준을 달리하여 다시 세분할 수도 있다. 17세기 음식문화(시대 기준), 경상도 북부의 음식문화(지역 기준), 양반가 음식문화(사회 계층 기준)와 같이 세분화된 특정문화 층위를 세울 수도 있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는 넓게는 불교문화라는 특정문화 층위에 속하면서, 좁게는 불교가 유교적 효(孝) 문화를 흡수 융합하는 층위 속에 놓인다. 후자에 주목하면 이 문헌이 수많은 사찰에서 수많은 시주자의 협찬을 받아 몇 세기에 걸쳐 계속 출판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13]

특정문화 층위는 그 문헌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분석 층위이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이라는 책은 음식조리서로서 '음식문화'라는 특정문화를 내포하고 있다. 당시의 음식조리법적 특징과 먹을거리, 조리도구 등 음식과 관련된 당시의 문화가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를 문화중층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것이 언어에 미친 영향,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논의할 수 있고, 이 문헌이 가진 가치가 더욱 잘 드러날 수 있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경우는 충효열을 기준으로 하는 유교문화가 중심이 된다. 당시 사람들이 충효열을 어떻게

13)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는 불교서임에도 불구하고 수 세기에 걸쳐 수많은 시주자의 협찬을 받으면서 출판을 이어왔다. 그 까닭은 이 책이 불교의 교리를 해설한 것이 아니라 부모 은혜의 무거움과 그 은혜를 갚는 방법을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효를 중시하는 유교적 도덕률에 부합하는 것이다.

받아들였는지, 국가는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전파하고자 하였는지 등의 문제가 특정문화 층위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14]

특정문화 층위에서는 『훈몽자회』와 『신증유합』 등 16세기에 간행된 자서류(字書類)들이 성리학적 유교문화의 확산을 위한 아동 대상 한자교육 정책과 어떤 관련성을 가진 것인지 논할 수 있다. 특정문화적 층위에 대한 분석은 개별 문헌자료들의 특수성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이것이 언어문화 층위, 사회문화 층위와 어떻게 융합되어 그 문헌의 문화적 가치를 형성하는지를 밝혀낼 수 있게 한다.

또한 여러 분야의 한글문헌 자료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범주화한 후, 특정문화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성격의 불교서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불교문화라는 특정문화 층위에서 다룰 수도 있고, 좀 더 세분화하여 다룰 수도 있다. 불교서 중 『염불보권문』 계통의 문헌은 대중을 위한 불교 포교서라는 점에서 여타의 불경언해서와 성격이 다르다. 대중적 불교서에 초점을 맞춘 특정문화 층위의 접근을 『염불보권문』에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문화중층성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층위를 설정하고, 각 층위의 개념을 논하였으며, 각 층위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요소를 설정하였다.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표1과 같다.

**표1-문화중층론의 층위에 따른 구성 요소**

| 층위 / 구성 요소 | 언어문화 층위 | 사회문화 층위 | 특정문화 층위 |
|---|---|---|---|
| 구성 요소 (분석 대상) | • 언어 요소<br>- 문자 표기<br>- 형태와 통사<br>- 어휘와 의미<br>• 언어예절과 경어법<br>• 문체와 텍스트<br>• 필사(筆寫) 요소<br>- 사본의 언어적 특성<br>• 언어정책 요소 | • 사회적 배경<br>• 정치적 상황<br>• 역사적 환경<br>• 출판과 인쇄 기술<br>• 간행 목적<br>• 간행 기관<br>• 저자 및 필사자 요소<br>- 저술 목적<br>- 필사 목적<br>- 필사기의 특성 | • 음식문화(음식조리서)<br>• 불교문화(불교서적)<br>• 유교문화(경서, 교화서)<br>• 여성문화(여성교훈서 등)<br>• 의료문화(의학서)<br>• 군사문화(兵書)<br>• 아동교육문화(아동교육서)<br>• 기타 문헌 주제별로 세분 가능 |

14)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문화와 특정문화의 경계를 명료하게 긋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경우 특정문화의 하나로 유교문화를 세울 수 있다. 그런데 유교문화는 사회문화의 한 요소로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그림1과 그림2에서와 같이 문화 요소 간의 중첩되는 영역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중첩성은 3장에서 다룰 통합적 해석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점이다. 각 문화 요소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표1에 제시하였다.

# Ⅲ. 문화중층론의 분석방법과 적용의 문제

## 1. 문화 요소의 추출과 해석방법

이 장에서는 2장에서 논의한 문화중층론의 세 가지 층위와 이에 속한 문화 요소를 추출하는 방법, 그리고 추출한 문화 요소를 해석하는 방법과 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한다.

### 1) 문화 요소의 추출방법

언어문화 층위, 사회문화 층위, 특정문화 층위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문화 요소는 연구 대상 문헌의 내부에 실리거나 외부에 놓인 여러 가지 사실을 토대로 추출해낼 수 있다. 한글문헌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언어 단위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문자 표기를 통해서 형성되는 형태소·어휘·구절·문장·텍스트 등이 언어 단위 요소이며, 이 단위들에서 여러 가지 문화 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 문자 표기는 시대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를 수 있다. 특정 글자의 존재 여부, 특정 자모자의 글꼴이 지닌 시대적 특성이 문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휘 단위의 측면에서 음식조리서의 예를 들어보자. 한글 음식조리서에서 추출된 어휘는 일차적으로 당시의 언어문화 요소를 보여 준다. 또한 음식조리서에서 추출된 어휘 요소 중 음식 명칭, 조리 도구, 식재료 등에 속하는 어휘는 당시의 음식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준다. 연구 대상 문헌을 통해 당시에 만들어진 음식과 조리방법, 식재료의 활용과 조리 도구의 사용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이는 곧 그 문헌이 지닌 특정문화 층위(=음식문화)에 접근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음식조리서의 어휘 중에는 당시의 사회문화를 추측하게 해주는 사회문화 층위의 문화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3판)에 나타나는 '신도(神道, shinto)'라는 일본어 낱말은 '일본 민속 신앙, 또는 제사'를 뜻하는 것이며,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사회문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또한 이 책에 등장하는 일본 음식 어휘[스시, 오야고돔부리 親子丼, 293쪽]는 당시 사회에서 일본 문화가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이처럼 음식조리서의 어휘자료를 연구자의 목적에 맞게 추출함으로써 우리는 당시의 언어문화와 사회문화 그리고 특정문화의 요소를 분석할

수 있다.[15] 분석된 문화 요소들은 해석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가 된다.

문화 요소의 추출은 문헌의 서지 요소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서지 조사방법을 통해 얻게 되는 책의 형태, 장정법, 지질, 판식과 판본, 자형(字形), 각수(刻手) 등의 정보는 그 문헌의 간행연도와 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헌의 서지 관련 정보는 사회문화 층위의 구성 요소 추출에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이 정보는 언어문화나 특정문화의 요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듯 각 문화 요소의 추출은 한글문헌을 이루고 있는 언어 단위와 문헌을 구성하고 있는 비언어적 단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 2) 개별적 해석방법

각 층위를 구성하는 문화 요소를 추출한 후에는 이에 대한 개별적 해석이 이어진다. 개별적 해석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추출된 문화 요소 개개에 대한 해석이다. 다른 하나는 이 요소들이 각각의 문화 층위 안에서 갖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로 구분한 것은 방법론적 정밀성을 얻기 위한 것이지만 문화 요소 해석 시 개별적 차원과 문화 층위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언어문화 층위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은 언어적 관점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해석하고, 사회문화 층위를 구성하는 문화 요소들도 각각이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지, 어떠한 사회문화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특정문화 층위를 구성하는 추출된 문화 요소 또한 그 문헌의 주제에 비추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개별적으로 해석한다. 예컨대 『진법언해』의 서두에 실린 「절목총론(節目總論)」에 "온갖 호령과 싸홈 졀ᄎᆞ와 샹시 습딘ᄒᆞᄂᆞᆫ 법을 언문으로 번역ᄒᆞ야 육담으로 ᄆᆡᆫᄃᆞ라 내여시니 긔ᄃᆡ총이어나 언문ᄒᆞᄂᆞᆫ 범군들이 브ᄃᆡ 힘써 닐ᄋᆞ면 너희게 ᄀᆞ장 유익ᄒᆞ리라"(진법언해 1b-2a)와 같은 문장이 나온다. 이 문장에는 언문으로 번역하는 것을 '육담(肉談)'이라 표현했다. '육담'이란 어휘가 함축하는 언어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이 문장을 통해 해석해낼 수 있다. 또한 '긔ᄃᆡ총이어나 언문ᄒᆞᄂᆞᆫ 범군'이란

15) 언어 단위를 통한 문화 요소의 추출은 문장이 아닌 문맥이나 텍스트의 구성, 편집 양식, 관용표현이나 화법 요소 등을 통해서도 추출해낼 수 있다.

표현을 통해 당시의 '긔ᄃᆡ총(旗隊總)'과 '범군(凡軍)'[16]들이 한문은 몰랐지만 언문을 아는 사람은 일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언어 단위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유추하고 해석하는 일이 이 단계에서 행해진다. 각 층위의 구성 요소로 추출된 각각의 문화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해석되어 다음 단계에서 진행되는 통합적 해석의 재료로 활용된다. 추출한 개별 문화 요소의 가치와 의미를 정밀하게 분석할수록 연구 대상 문헌에 대한 통합적 해석은 그 깊이를 더해갈 것이다.

### 3) 통합적 해석방법

문화 요소와 문화 층위에 대한 개별적 해석 단계를 거친 후, 문화 층위 전체를 묶어서 고찰하는 통합적 해석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개별적으로 추출된 문화 요소들은 상호 간의 연계성을 찾아내어 의미 맥락을 서로 교차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앞선 단계에서 추출된 문화 요소들이 하나의 문화 층위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개별적 해석을 거치게 된다. 이어서 3개의 문화 층위를 다시 통합하여 고찰하는 통합적 해석으로 나아간다. 개별 문화 요소의 의미와 이 의미가 하나의 문화 층위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개별적 해석을 거친 후 통합적 해석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언어문화, 사회문화, 특정문화라는 문화 층위에서 도출된 해석을 의미적으로 관련 지어 통합적 관점에서 수렴해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3과 같다.

앞서 살펴본 그림1, 그림2, 표1에서 우리는 언어문화, 사회문화, 특정문화라는 세 층위를 설정하고, 각 층위에 포함되는 구성 요소를 설정해보았다. 위에서 설정한 3개의 층위와 문화 요소를 구성하는 것들은 융합체로 덩어리진 문헌을 분석하기 위해 만든 장치이다. 각 층위별로 분석되어 나온 구성 요소들은 개별 층위 내의 해석과 통합적 해석을 거치게 됨을 위에서 논하였다.

3개의 문화 층위를 아우르는 통합적 해석을 통해 그 문헌의 역사적

16) '기대총(旗隊總)'은 '기총(旗總)'(소대장급)과 '대총(隊總)'(분대장급)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고, '범군(凡軍)'은 일반 병졸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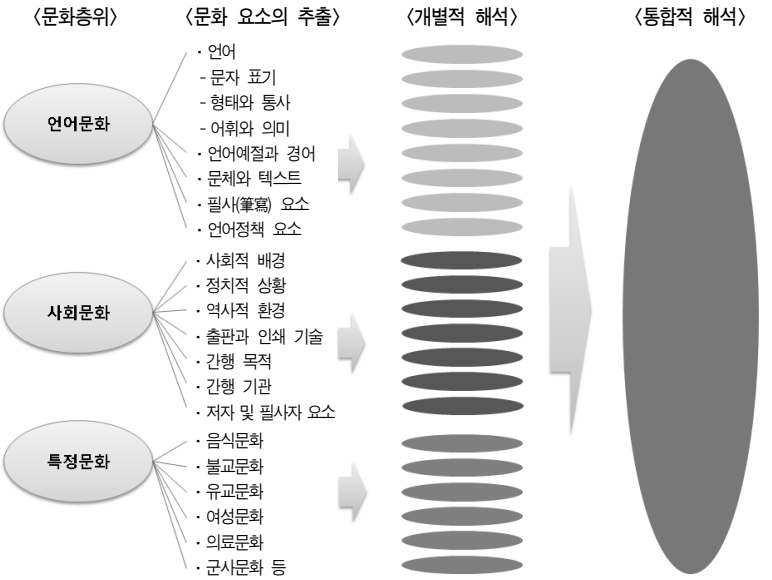


**그림3-문화중층론 구성 요소의 분석과 통합적 해석과정**

위상을 설정하고 그 가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통합적 해석을 위한 더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 그림3에 나타낸 각 층위의 구성 요소의 설정과 분석은 문헌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이다. 개별적 해석방법과 통합적 해석방법 역시 문헌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문헌에 적용될 수 있는 통합적 해석을 위한 연구 절차를 세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절차를 고안해보았다.

첫째, 각 층위에서 나온 문화 요소의 분석과 그 결과를 명료하게 정리하고 체계화한다. 문화 요소의 분석 결과가 명료히 정리되고 체계화되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층위 간 중복되는 요소의 처리와 해석에 관련된 것이다. 예컨대 언어예절, 언어정책 요소는 언어문화이지만 동시에 언어의 사회적 성격에 지배되는 사회문화적 요소가 되기도 한다. 서지학적 요소는 사회문화 층위에 속하면서 정치적 상황과 관련되는 다중적 성격이 있다. 이처럼 두 층위에 걸치는 요소의 처리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각 문화 층위에서 정리되고 개별적으로 해석된 결과를 상호 연관 지어서 서로의 영향관계 혹은 인과관계를 찾는다. 언어문화 층위에

서 나온 분석 결과가 사회문화 층위에 어떻게 작용하였으며, 역으로 사회문화 층위에서 나온 분석 결과가 언어문화 층위에서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살펴야 한다. 문헌의 특정문화 층위에서 밝혀진 특성이 그 문헌의 언어문화에 어떻게 작용하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밝혀야 한다.

셋째, 세 층위의 상호 연관성과 상호 작용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해석하여 그 문헌에 내포된 문화중층성의 본질을 진술한다. 여기서 '통합적으로 해석하여'라고 한 것은 한 문헌의 언어문화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특정문화적 가치를 묶는다는 뜻이다. 위의 두 번째 절차를 거쳐서 우리는 층위 간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한 후, 이것을 다시 종합하여 연구 대상 문헌이 지닌 문화중층성의 본질적 속성을 문장으로 표현함으로써 통합적 해석 작업은 마무리된다.

## 2. 적용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표1에서 한글문헌 자료에 내재된 중층적 층위와 각 층위를 구성하는 요소 및 분석 대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층위 설정과 문화중층성의 분석방법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층위 간의 경계 혹은 관련성 문제, 문헌에 내재된 시간성과 공간성의 문제, 연구 대상 문헌을 설정하는 방법의 문제, 층위별 분석을 뛰어넘어 문화중층성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 문제점들을 고찰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 1) 층위 간 경계 문제

첫째는 층위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언어문화 층위의 구성 요소로 설정된 '어휘와 의미'는 특정문화 층위의 구성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예컨대 신활자본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 나타난 어휘들은 주로 음식명이나 조리 동사와 조리 도구 등의 조리 명사 어휘이다. 그런데 조리 관련 어휘들은 언어문화의 요소도 될 수 있고 동시에 음식문화라는 특정문화의 구성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 분석하여 기술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양 층위에 걸치는 구성 요소들은 일단 각각의 층위에서 개별적으로 서술한 후, 이차적으로

언어문화와 특정문화가 중첩된 영역(언어문화∩특정문화)을 통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다. 중층론적 방법론을 문헌 분석에 실제로 적용해보면, 우리는 층위 간의 교차와 혼합 현상을 만나게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각 층위에 대해 정밀한 고찰과 서술을 한 후 이를 기반으로 층위 간의 교집합 영역을 논할 수 있다. 이 교집합 영역은 층위 분리가 아니라 층위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17] 층위 간의 교집합 영역에 대한 통합적 기술의 전제가 되는 것은 각 층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다.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언어문화 층위에 대한 정밀하고도 체계적인 분석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언어문화 층위의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를 특정문화 부문과 연관 지어 통합적 해석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문화 부문과 언어문화 부문의 교집합 영역에 대한 접근은 특정문화와 언어문화의 교집합 영역에 대한 접근과 달라질 수 있다. 한 문헌에 담긴 사회문화의 요소들은 그 문헌의 산출 배경이 되는 것이고, 특정문화의 요소들은 한 문헌이 표방하는 중심 내용을 구현하는 것이다. 양자의 성격이 서로 다른 것이므로 통합적 해석의 관점도 달라질 수 있다.

### 2) 문헌의 시간성 문제

둘째는 문헌에 내재된 시간성의 문제이다. 각각의 문헌자료들은 그 문헌이 산출된 당대의 문화가 녹아 있는 공시적 융합체이다. 그런데 이 공시적 융합체는 개별 문화 층위 혹은 문화 요소들이 통시적으로 중첩된 결과물이다. 공시적 융합체로 그 모습을 현현(顯現)한 것이 문헌이라면, 여기에 녹아 있는 통시적 중첩을 어떻게 분석해내어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언어 연구에서 언어를 공시태와 통시태로 나누고, 이들을 통합적으로 기술하는 이론을 모색하는 것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필자는 "언어는 통시적으로 형성되어 공시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기본 명제를 세우고자 한다. 인간 생활에 작용하는 문화도 이와 마찬가지 속성을 가진다. 생각해보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체는 통시적으로 형성되어 와서, 지금 존재하는 이 순간에 공시적으로 작용하며 생명활동을 하고

17) 두 가지 문화가 중첩된 영역을 '이중 중첩 영역', 세 가지 문화가 중첩된 영역을 '삼중 중첩 영역'이라 부를 수 있다.

있다. 언어도 이와 같다. 흘러간 과거 시간에 겪었던 변화, 생성, 소멸의 과정이 끊임없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왔고, 이들이 공시적 현실 속에서 융합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언어이다.

하나의 문헌자료에도 그 문헌이 품고 있는 통시적 요소의 층위들이 누적되어 있다. 우리는 각 문화 층위에 누적된 통시적 요소와 특성을 분석하여, 그것이 문헌이 생산된 당대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밝힐 수 있다. 나아가 그 문헌이 산출된 시대를 뛰어넘어 현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도 해명할 수 있다. 통시적 지속성이 공시적 현실 속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는 방법론은 언어는 물론 문헌자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앞에서 세운 층위와 관련지어 말한다면 언어문화 층위는 물론 사회문화 층위의 서술에서 통시적 중첩을 통한 공시적 작용과 현재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다 정교한 방법론을 모색하고 정립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 3) 문헌의 공간성 문제

셋째는 문헌에 내재된 공간성의 문제이다. 생산 당시의 공시적 현현물(顯現物)인 문헌자료들은 통시적 중첩의 결과라는 점을 앞에서 언급했다. 그런데 각각의 문헌자료들은 그 문헌이 생산된 공간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문헌의 산출 공간에는 지리적 차원의 공간도 있고, 사회적 차원의 공간도 있다. 사회적 차원의 공간은 사회문화 층위와 직접 관련된 것이다. 우선 지리적 공간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보자. 문헌자료가 생산된 지리적 공간은 그 문헌의 언어문화 층위는 물론 사회문화 층위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지리적 공간에 따라 언어적 차이가 문헌에 반영될 수 있고,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의 사회적 성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개별 문헌이 지닌 지리적 공간 혹은 사회적 공간의 성격과 특성이 언어문화 층위와 사회문화 층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문헌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도달하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문헌의 공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글문헌 자료가 지닌 시간성 측면과 공간성 측면을 보다 명료하게 인식하면서 문헌의 문화 층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어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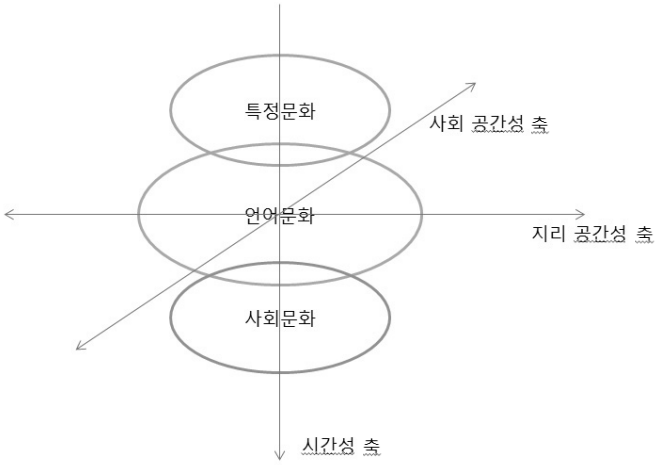


**그림4-한글문헌의 시간성과 공간성 개념도**

층위와 사회문화 층위는 시간성과 공간성(사회 공간성, 지리 공간성)의 축을 지렛대로 삼아 움직여온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중층성 개념도에 시간성 축과 공간성 축(사회 공간성 축, 지리 공간성 축)이라는 지렛대를 더 보태어 간단히 표현하면 그림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4는 하나의 한글문헌이 시간성과 공간성을 축으로 하여 여러 문화 요소가 중첩된 중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 틀에서 한글문헌을 연구한다면 개별 문헌 혹은 일정한 문헌에 내재된 다중성(多重性)과 중층성(重層性)을 밝힐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문헌자료에 대해 보다 발전된 통합적 이해를 획득할 수 있다.

### 4) 문화중층론 적용 대상 문헌을 설정하는 문제

넷째는 이 이론을 적용할 대상 문헌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말해서 이 이론은 모든 한글문헌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글문헌 자료 하나하나에 이 방법론을 모두 적용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문화중층론의 대상 문헌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가? 문화중층론을 적용하여 연구할 만한 대상 문헌을 선정하는 방법과 기준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필자가 생각해본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하여 후속 연구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첫째, 역사적 의의가 큰 문헌은 개별 문헌을 문화중층론의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석보상절』, 『두시언해』, 『음식디미방』, 특정 집안에서 나온 다수의 언간(순천김씨언간, 현풍곽씨언간, 은진송씨언간, 왕실언간) 등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은 전통 음식조리법과 외국 음식조리법이 혼재되어 있고, 전통문화의 소양을 가진 유학자가 개화기 이후에 들어온 신식 문화를 접하여 저술한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 책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 하나에 문화중층론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둘째, 여러 번 중간되어 다수의 이판본을 가진 문헌(『삼강행실도』, 『이륜행실도』, 『경민편언해』, 『병학지남』,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염불보권문』 등)도 문화중층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유의 문헌은 대부분 역사적 의의가 큰 문헌들이다. 겉으로 보기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하나하나의 문헌자료는 다양한 문화 요소의 융합체이면서 동시에 문헌 간에 서로 연결되는 고리를 가지고 있다. 동일한 권두서명을 가진 『병학지남』 20여 개의 이판본은 명백한 공통성을 가지는 하나의 문헌 집단을 이룬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역시 그러하다. 서명(書名)은 다르지만 일정한 범위에서 공통성을 가진 문헌 집단도 문화 융합체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예컨대 『무예도보통지언해』, 『무예제보』, 『화포식언해』, 『진법언해』 등은 『병학지남』과 같이 '병서(兵書)'라는 하나의 문헌 집단으로 묶을 수 있다. 또한 각종 의서(醫書) 언해본도 이런 관점에서 묶을 수 있다. 다양한 층위의 개별 문헌과 문헌 집단에 융합된 문화 요소를 분석하고 문헌들 간의 연결 고리(상호 연관성)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론으로 필자는 문화중층성의 개념과 분석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셋째, 공통적 성격을 가진 문헌 부류를 묶어서 문화중층론을 적용할 수도 있다. 간경도감본 불경언해류, 언해본 의학서류, 천자문류, 신증유합을 포함한 유합류, 사서삼경언해류, 19세기 간행 도가서언해류, 필사본 한글 음식조리서류, 20세기 전기의 신활자 음식조리서류, 언간류, 한글제문류, 한글고문서류, 언간독류 등등이 여기에 속한다. 공통적 성격의 범위를 어느 정도 크기로 하느냐에 따라 대상 문헌의 설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문화중층론적 분석의 대상 문헌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연구방법을 찾는 일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 Ⅳ. 맺음말

한글문헌 자료의 문화중층론적 연구는 지금까지 학계가 이루어놓은 성과를 기반으로 한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나온 각종 한글문헌 자료에 대한 연구 성과는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되어 있다. 국어학 분야에서는 음운사, 문법사, 어휘사 등의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룬 연구 성과가 쌓여 있다. 문헌학 혹은 서지학 분야에서도 국어학자나 서지학자가 이루어놓은 한글문헌의 연구 성과가 적지 않다. 한글문헌에 대한 문화중층론적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 성과에 기초를 두면서, 더 확장된 시야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찾고자 하는 목적에서 고안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글문헌의 문화중층론적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각 층위에 대한 선행 연구의 흡수와 새로운 관점에서의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연구 대상 문헌을 깊이 이해할 수 없다.

우리말의 생명력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한글문헌 자료는 그 활용 범위와 가능성이 매우 넓고 높다. 우리는 한글문헌 자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국어사의 외연을 더욱 넓혀갈 수 있다. 필자가 제안한 문화중층론적 연구방법은 국어사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국어사 연구가 인접 분야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Ⅰ장에서는 한글문헌 자료의 문화중층론적 연구방법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한글문헌 자료 연구에 대한 기존 연구 방법론의 한계를 진단하고, 그 보완책으로 문화중층론적 연구방법을 제안하였다.

Ⅱ장에서는 문화중층론의 구체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그 하위 층위에 대해 논의하였다. 1절에서는 한글문헌이 가지는 '문화중층성(文化重層性)'을 '어떤 대상에 문화적인 요소가 중첩되고 융합되어 있는 성질'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문화중층성'을 분석해내는 이론을 '문화중층론'이라 칭하고, 이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층위로 '언어문화', '사회문화', '특정문화'의 범주를 설정하였다. 언어문화는 한글문헌 자료의 텍스트를 구성하는

언어와 그와 연관된 문화적 특성을 뜻한다. 사회문화는 그 문헌에 반영되었거나 관련된 당대의 사회적 특성을 가리킨다. 특정문화는 그 문헌의 중심 내용 혹은 주제와 관련된 문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문헌 특정적(特定的)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중층적으로 결합된 융합적 구조체를 그림2에서 '한글문헌 자료의 문화중층성 개념도'라는 이름으로 제시하였다.

Ⅲ장에서는 문화중층론의 구체적인 분석방법과 적용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2절에서는 문화중층을 이루는 세 가지 문화 층위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 논하고, 각 층위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를 다루었다. 각 층위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는 표1에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1절에서는 세 가지 층위의 문화 요소를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추출하여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 연구방법에 대해 논하였다. 언어단위를 이루고 있는 문자 표기 · 형태소 · 어휘 · 구절 · 문장 · 텍스트에서 언어문화 요소와 사회문화 요소 및 특정문화의 요소를 추출함과 더불어, 내용상의 문맥과 서지 요소 등에서도 각 문화 층위의 요소들을 추출할 수 있음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 요소의 추출을 기반으로 문화 요소의 개별적 해석을 시도하고, 상호 간의 연관관계와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화 요소의 추출과 개별적 해석 및 통합적 해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림3에 제시하고, 세 가지 연구 절차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작업과정을 연구 대상 문헌에 적용함으로써 문화중층성의 본질을 진술할 수 있음을 논하였다.

2절에서는 한글문헌의 문화중층성 이론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논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첫째, 각 층위의 경계 설정과 경계 간 중복되는 영역을 다루는 문제를 논하였다. 이에 대해 각 층위에서 철저한 개별적 분석을 행하고 이어서 층위 간의 중복되는 부분을 교집합 영역으로 설정하여 다룰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문헌에 내재된 시간성 문제, 즉 문헌에 내재된 공시성과 통시성의 중첩 문제를 다루었다. 언어문화 층위는 물론 사회문화 층위의 서술에서 통시적 중첩을 통한 공시적 작용과 현재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문헌에 내재된 공간성 문제를 다루었다. 공간성을 지리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으로 나누고, 문헌의 공간적 특성이 언어문화 층위와 사회문화 층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이 공간성 요소를 중시하여 그림4에서 문화중층성 개념도를 재구성해보았다. 넷째, 문화중

층론의 적용 대상 문헌을 선정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역사적 의의가 크고 여러 번 간행된 문헌은 이판본들을 한 부류로 묶어서 적용하고, 공통적 성격을 가진 여러 문헌을 한 부류로 묶어서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 필자는 한글문헌에 대한 문화중층론적 연구방법의 얼개를 구성해보려고 했다. 여기서 논한 연구방법은 개별 문헌 혹은 문헌군(文獻群)에 구체적으로 적용해봄으로써 수정과 보완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주)두산동아, 1999.

국어사학회 · 국립국어원,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현대적 이해와 국어음운사』. 2013년 국어사학회 · 국립국어원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3.

권재일, 「국어사 연구 방법과 외래 이론 수용」. 『국어학』 43, 국어학회, 2004, 385-405쪽.

김경숙, 「고문서를 활용한 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영남학』 1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6, 303-334쪽.

김광해, 「국어발전의 양상」. 『선청어문』 24, 서울대학교 사범대 국어교육과, 1996, 123-146쪽.

김무식, 「조선조 여성의 문자생활과 한글편지」. 『인문학논총』 14,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1-25쪽.

_____, 「대구 · 경북지역어의 연구 양상과 대구 문화」. 『어문론총』 55, 한국문학언어학회, 2011, 9-34쪽.

김봉좌, 「조선 후기 궁묘 제사 관련 한글문헌의 문헌적 특징」. 『국어사연구』 10, 국어사학회, 2010, 133-172쪽.

김봉희, 「근대인쇄문화의 도입과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10, 서지학회, 1994, 99-134쪽.

_____, 「일제시대 출판문화-종합잡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8, 173-232쪽.

김순배, 「언어적 변천에 따른 지명 유형과 문화정치적 의의」. 『정신문화연구』 34-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229-257쪽.

김슬옹, 「훈민정음 문자 만든 원리와 속성의 중층 담론」. 『한민족문화연구』 21, 한민족문화학회, 2007a, 95-135쪽.

_____, 「훈민정음 창제 동기와 목적에 관한 중층 담론」. 『사회언어학』 15-1, 사회언어학회, 2007b, 21-45쪽.

김인회, 「조선시대 사대부의 한글 사용과 의미」. 『정신문화연구』 35-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35-54쪽.

김재경, 『한국문화사강론』. 녹문당, 1999.

김주필, 「『오륜행실도』에 사용된 국어사 자료의 중층성-ㄷ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의 확산 상태를 중심으로-」. 『어문학논총』 27,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8, 89-112쪽.

노양진, 「다원주의적 문화 해석-체험주의적 접근」. 『철학연구』 101, 대한철학회, 2007, 49-69쪽.

류탁일, 『한국문헌학연구』. 아세아문화사, 1999.

린 헌트 저, 조한욱 역,『문화로 본 새로운 역사: 그 이론과 실제』. 소나무, 1996.
문형진,「한국 상장풍속에 담긴 제 문화 요소와 그 의미를 토대로 한 문화교육 방안 연구」.『아시아문화연구』25,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2, 283-308쪽.
민현식,「국어문화사의 내용 체계화에 대한 연구」.『국어교육』110, 국어교육학회, 2003, 201-267쪽.
박몽구,「일제 강점기 한민족 출판 연구」.『한국출판학연구』59, 한국출판학회, 2010, 89-124쪽.
박창원,「한국인의 문자생활사」.『동양학』28, 단국대동양학연구소, 1998, 57-88쪽.
방효순,「일제시대 민간 서적발행활동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백두현,「조선시대의 한글 보급과 실용에 관한 연구」.『진단학보』92, 진단학회, 2001, 193-218쪽.
_____,「국어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하여」.『국어학』47, 국어학회, 2006a, 3-38쪽.
_____,「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한글 음식조리서와 여성교육서를 중심으로」.『어문론총』45, 한국문학언어학회, 2006b, 261-321쪽.
_____,「한글을 중심으로 본 조선시대 사람들의 문자생활」.『서강인문론총』22. 서강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07, 157-203쪽.
_____,「훈민정음을 활용한 조선시대의 인민 통치」.『진단학보』108, 진단학회, 2009, 263-297쪽.
_____,「어문생활사로 본 언간과 한글고문서의 연구방법」,『국어사연구』10, 국어사학회, 2010, 41-72쪽.
석주연,「조선시대 한글문헌의 간행 경위와 배포 양상 연구」.『한민족어문학』57, 한민족어문학회, 2010, 43-70쪽.
성기철,「언어와 문화의 접촉-언어문화」.『한국언어문화학』1-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4, 105-123쪽.
송일기 · 이태호,「조선시대 행실도 판본 및 판화에 관한 연구」.『서지학연구』21, 서지학회, 2001, 79-121쪽.
신경숙,「위관 이용기의 저술활동과 조선적인 것의 추구」.『어문논집』62, 민족어문학회, 2010, 61-90쪽.
신명선,「개화기 국어 생활 연구-독립신문의 광고를 중심으로」.『국어교육』11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127-156쪽.
안길정,『조선시대 생활사』(상 · 하). 사계절, 2000.
안대회,「조선 후기 이중 언어 텍스트와 그에 관한 논의들」.『대동한문학』24, 대동한문학회, 2006, 203-232쪽.

안병희, 「언해의 사적 고찰」. 『민족문화』 11, 한국고전번역원, 1985a, 7-26쪽.
_____, 「훈민정음 사용에 관한 역사적 연구-창제로부터 19세기까지」. 『동방학지』 46·47·4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5b, 793-821쪽.
_____, 『국어사 문헌 연구』. 태학사, 2009.
안신, 「한국 신종교의 창조성과 중층성에 대한 연구-수운교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28, 한국신종교학회, 2013, 79-108쪽.
영남문화연구원, 『영남지방 생활사 자료의 길잡이: 관료생활편』. 경북대학교, 2010.
우인수, 「조선시대 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교육론집』 23·24, 역사교육학회, 1999, 825-854쪽.
유태용, 『문화란 무엇인가』. 학연문화사, 1999.
육영수, 「역사학의 '문화적 전환': 서양적 기원과 한국적 전유」. 『역사민속학』 4, 한국역사민속학회, 2002, 256-280쪽.
이경하, 「17세기 상층여성의 국문생활에 관한 문헌적 고찰-여성 대상 전장문(傳狀文), 비지문(碑誌文)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39, 한국문학연구회, 2005, 217-241쪽.
_____, 「중세의 여성 지성과 문자의 관계」. 『여성문학연구』 2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31-55쪽.
이광렬, 「광해군대(光海君代)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편찬의 의의」. 『한국사론』 53, 정옥자선생정년기념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7, 143-202쪽.
이규진, 「근대시기 서양인 시각에서 본 조선음식과 음식문화-서양인 저술을 중심으로」,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8-4, 한국식생활문화학회, 2013, 356-370쪽.
이복규, 「우리의 옛 문장부호와 교정부호」. 『고문서연구』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457-482쪽.
이상혁, 『훈민정음과 국어연구』. 역락출판사, 2004.
이성우, 『한국요리문화사』. 교문사, 1985.
이승희, 「'순원왕후 한글편지'의 자료적 특성에 대한 일고찰」. 『한국문화』 4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구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8, 31-47쪽.
_____, 『순원왕후의 한글편지』. 푸른역사, 2010.
이용기,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3판). 영창서관, 1936.
이우성, 「조선왕조의 훈민정책과 정음의 기능」. 『진단학보』 42, 진단학회, 1976, 182-186쪽.
이장희, 「어문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영남학』 13,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8, 333-367쪽.
이종덕, 「17세기 왕실언간의 국어학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이종묵, 「조선시대 여성과 아동의 한시 향유와 이중언어체계」. 『진단학보』 104, 진단학회, 2007, 179-208쪽.

이호권,「조선시대 한글문헌 간행의 시기별 경향과 특징」.『한국어학』41, 한국어학회, 2008, 83-114쪽.
전경목,「한글편지를 통해 본 조선 후기 과거제 운용의 한 단면」. 정신문화연구 34-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27-57쪽.
정병설,「조선 후기 한글, 출판 성행의 매체사적 의미」.『진단학보』106, 진단학회, 2008, 145-164쪽.
_____,「조선시대 한문과 한글의 위상과 성격에 대한 일고: 심신우언(心身寓言)의 비교를 통하여」.『한국문화』4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3-20쪽.
정승혜,「한글 토지매매명문과 배지(牌旨)에 대한 일고찰」.『국어사연구』1, 국어사학회, 2000, 175-191쪽.
정재영,「안락국 태자 변상도」.『문헌과해석』통권 2호, 1998년 봄호, 156-169쪽.
조동일,「어문생활사로 나아가는 열린 시야」.『관악어문』2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03, 69-90쪽.
조아라,「일본 홋카이도의 지역개발 담론과 관광이미지의 형성-전후 고도성장기 대량관광에서 포스트모던 관광」.『문화 역사 지리』22-1,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0, 79-96쪽.
조한욱,『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책세상, 2000.
_____,「사회사와 신문화사」.『서양사론』71, 한국서양사학회, 2001, 169-178쪽.
주명철,『사회사에서 문화사로」.『한국사시민강좌』8, 일조각, 1991.
한국고문서학회,『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1996.
_____,『조선시대 생활사 2』. 역사비평사, 2000.
한국역사연구회,『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1-2권. 청년사, 1996.
허재영,「조선시대 여자 교육서와 문자생활」.『한글』272, 한글학회, 2006, 197-219쪽.
_____,「어문생활사 연구 대상과 방법」.『우리말글』42, 우리말글학회, 2008, 135-153쪽.
홍윤표,「한글고문서의 연구 현황과 과제」.『영남학』10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6, 185-262쪽.
_____,「문화와 국어」.『새국어생활』17-2, 국립국어원, 2007, 105-119쪽.
_____,「어문생활사」,『세계 속의 한글』, 박이정, 2008, 105-164쪽.
홍은진,「조선 후기 한글 고문서의 양식」,『고문서연구』16 · 17호, 고문서학회, 2000, 57-89쪽.

Edward B. Tylor, *Primitive Culture*. London: John Murray, 1871.

## 국 문 요 약


한글문헌에 대한 문화중층론적 연구방법은 문헌자료에 중층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를 드러내고, 그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다. 각각의 한글문헌에는 당대의 언어문화와 사회문화, 그리고 그 문헌의 주제와 관련된 특정문화가 중층적으로 축적·융합되어 있으며, 한글문헌은 바로 이러한 문화적 요소의 축적과 융합의 결과물이다. 한글문헌에 대한 문화중층론적 접근은 국어사 연구의 방법론을 확충하는 것이며, 문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글문헌 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점들이 문화중층론적 방법론에 의해 드러날 수 있다. 한 문헌이 담고 있는 언어현상은 물론 그 문헌을 둘러싼 당대의 사회문화, 그 문헌이 산출된 역사적 배경, 그 문헌에 담긴 주요 내용과 문화적 의미 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문화중층론적 연구의 핵심이다. 문헌이 산출된 당시의 언어생활과 사회적 환경, 시대적 배경과 그 특성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문헌이 지닌 문화적 의의를 밝히는 것이 이 이론의 목적이다. 문화중층론적 연구방법을 한글문헌에 적용함으로써 그 문헌의 언어적 성격과 가치는 물론 문화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조명해낼 수 있을 것이다.

본론인 Ⅱ장, Ⅲ장에서는 문화중층론의 개념을 정의하고 구성 요소와 분석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어떤 대상에 문화적인 요소가 중첩되고 융합되어 있는 성질'을 '문화중층성(文化重層性)'이라 정의하고, 문화중층성을 분석해내는 이론을 '문화중층론'이라 칭하였다. 문화중층론은 '언어문화 층위', '사회문화 층위', '특정문화 층위'로 범주화될 수 있으며, 각 층위들은 각각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문화중층성을 구성하고 있는 각 문화 요소들은 문헌 내·외부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추출할 수 있으며, 추출된 각 문화 요소들은 문화중층성의 층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해석된다. 개별적 해석은 통합적 해석의 기초가 된다. 언어문화, 사회문화, 특정문화 간의 상호 영향 관계에 대한 통합적 해석은 국어사적 지식을 확장시켜줄 수 있다. 더불어 한글문헌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줄 수 있다.

한글문헌의 문화중층론적 연구는 선행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좀 더 확장된 시야에서 한글문헌에 접근하는 이론을 찾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한글문헌 자료에 대한 서지학적 · 국어학적 선행 연구는 문화중층론적 이론의 토대가 된다. 문화중층론적 연구는 선행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한글문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 국어사의 외연을 사회 · 역사 · 문화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인접 분야와 소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투고일** 2014. 6. 23.
**심사일** 2014. 8. 4.
**게재 확정일** 2014. 8. 28.
**주제어(keyword)** 한글문헌(Hangeul literature), 국어사 문헌(literature on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문화(culture), 문화중층론(theory of cultural layering), 중층성(layered attribute), 언어문화(languistic culture), 사회문화(social culture), 특정문화(theme-specific culture), 문헌의 시간성과 공간성(temporality and spatiality of literature), 통합적 해석(integrative interpretation)

# Abstracts

## An Introduction to Culturally Layered Theoretical Research Methods for Hangeul Literature

**Paek, Doo-hyeon & Bae, Jun-young**

A culturally layered theoretical research method for Hangeul literature aims to reveal the diverse cultural components converging in multiple layers in literary documents, and to throw light on their meanings. In each Hangeul literary document, the contemporary linguistic, social, and other theme-specific cultures accumulate and converge in combination. Hangeul literature is thus a product of such accumulation and convergence. The culturally layered theoretical approach to Hangeul Literature will help broaden the horizon of research methodology in the field of Korean linguistic history, and to pursue a new understanding of Hangeul literature.

The culturally layered theoretical method allows for insight into issues that have not yet been discussed satisfactorily in existing studies of Hangeul literature. The key point of a culturally layered theoretical study is to understand as a whole not only linguistic phenomena contained in literature, but also the contemporary social culture, the historical background against which such literature was produced, and the cultural impact of the main contents of the literary document. The purpose of this theory is to unearth the cultural meaning of literature by analyzing the document for traces of contemporary linguistic life, social environment, and historical background, along wit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its characteristics. It becomes possible to illuminate Hangeul literature as a valuable cultural resource as well as a linguistic one by applying the culturally layered theoretical research method.

The main chapter defines the concept of culturally layered theoretical research, and discusses in detail its component elements and analysis methods. The characteristic of "multiple cultural elements overlapping and fusing within a single object" is named "cultural layering," and the approach which looks into and analyzes this phenomenon is called the "culturally layered theoretical method." This methodology can be categorized into the strata of linguistic culture, social culture, and theme-specific culture, and these layers each include smaller component units. The cultural elements that form the attribute of cultural layering can be extracted by observation and analysis of both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literary documents. These extracted elements are then each interpreted individually within their strata, the results of which become the basis for an integrated interpretation. An integrated approach on the interplay of linguistic, social, and theme-specific cultures will expand our knowledge of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and will also lend a deeper understanding of Hangeul literature.

This culturally layered theoretical approach to Hangeul literature was devised in the search for a theory that approaches Hangeul literature from a broader perspective based on the accomplishments of existing studies. Previous bibliographical/philological and linguistic studies on Hangeul literature form the basis for the theory of cultural layering. The culturally layered theoretical method intensifies our understanding of Hangeul literature. Furthermore, it will contribute to scholarly communication with adjacent fields by extending the academic reach of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to social, historical, and cultural dimensions.